

【P2-5】

지속성 복막 투석 환자의 골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계측 및 생화학적 표지자, 생활습관에 관한 연구손숙미¹ · 박진경

가톨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지속성 복막투석환자의 경우 오랫동안의 만성신부전으로 인해 영양소 섭취가 저하되어 근육의 손모, 체중감소 등으로 인해 골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요추(L2-L4)와 대퇴부(femeral neck, trochanter)의 평균 골밀도의 T값이 모두 -1 미만인 군 86명과(골감소증군), 두 부위중 1군데 이상의 T값이 -1 이상인 군 32명(정상군)을 대상으로 하여 신체계측치 및 생화학적 표지자, 생활습관의 차이를 조사 하였다. 골감소증군은 나이, 성별, 교육정도를 adjust 했을때 정상군에 비해 키($p < 0.001$), 체중($p < 0.01$), LBM ($p < 0.01$)이 유의하게 낮았으나 상박피부두께($p < 0.01$), 체지방비율은 유의하게 높았다($p < 0.01$). 혈중 크레아티닌, uric acid, BUN (모두 $p < 0.001$)은 모두 골감소증군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소변의 크레아티닌, 인의 배설량($p < 0.01$)은 유의하게 높았다. 혈중 무기질의 경우 골감소증군은 혈청 Ca, P, Na, K 등 모든 무기질의 혈중 농도가 낮은 경향이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5 (OH)vit.D3의 경우 골감소증군과 정상군의 수치가 13.97 nmol/L, 14.40 nmol/L로서 결핍기준치인 12 nmol/L에 비해 약간 높았으나 낮은 정상에 속했으며 osteocalcin은 두군 모두 기준치보다 낮았다. 공복시 혈당은 골감소증군이 137.1 mg/dl로서 정상군의 117.3 mg/dl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나($p < 0.01$) 골감소증군의 혈청 콜레스테롤은 유의하게 낮고($p < 0.05$) HDL-C은 유의하게 높아($p < 0.05$) 혈청 지질의 profile은 정상군에 비해 좋았다. 골감소증군의 경우 하루에 햇빛 쬐는 시간이 30분 이하가 52.9%로 정상군의 28.1%에 비해 높은 경향이였으며 주관적인 영양판정점수(SGA)의 경우에도 영양상태를 좋지않게 판정하였고 특히 기력($p < 0.01$), 병력($p < 0.001$)에 관한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 밖에 흡연, 음주, 운동 등은 양쪽 군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여성의 경우 초경연령, 폐경연령 등도 두 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2-6】

위암환자의 진단 전 염분섭취 및 식품섭취빈도 분석정승은¹ · 조미란¹⁾ · 김시영²⁾ · 조여원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의학영양학과, 경희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¹⁾, 경희의료원 중앙혈액내과²⁾

위암에 의한 사망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암 발생에서 위암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위암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주요 요인으로 음식 내의 첨가물, aflatoxin, nitrosamine, 인공감미료, 식용색소, BHT 등이 주목받고 있다. 또한 나트륨 함량이 높은 염장식품의 과잉섭취와 위암과 관련이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 현재까지 위암과 연관된 식이 요인에 관한 연구는 많이 있으나 대부분이 외국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식이형태가 매우 다른 우리나라 위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위암환자의 염분섭취습관 및 식품섭취빈도를 분석하고자, 위암 진단 후 위절제술을 받은 환자 22명(50.7 ± 11.9세)과 age-matching 정상 대조군 19명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위암 진단 전 염분섭취 습관(염분섭취 습관 문항은 총 1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염분섭취가 높음을 의미함)과 식품섭취빈도(반정량적 식품섭취빈도조사지 이용)를 기록한 후, 연구자와 일대일 면접으로 확인하였다. 환자군의 위암 수술 후 평균 경과기간은 4.6 ± 5.2개월이었으며, 환자의 81.8%가 위아전절제술(subtotal gastrectomy)을 시행 받았다. 수술 후 평균 체중감소율은 5.5 ± 4.4%였으나, 현재 %IBW는 96.7 ± 9.6% (대조군 109.5 ± 10.1%)로 정상체중 범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염분섭취 습관조사 결과, 환자군(7.5 ± 3.3점)과 대조군(6.7 ± 2.3점)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염분섭취 식품에서는 햄·소시지와 외식, 찌개류의 섭취가 환자군에서 높게 나타났다($p < 0.05$). 식품섭취빈도조사 결과, 환자군에서 쇠고기 살코기(환자군 6.6회/mon, 대조군 2.7회/mon), 내장육(환자군 2.2회/mon, 대조군 0.4회/mon), 고등어(환자군 8.7회/mon, 대조군 3.4회/mon), 젓갈류(환자군 7.7회/mon, 대조군 1.7회/mon), 라면(환자군 6.8회/mon, 대조군 1.7회/mon) 등의 섭취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높았으며, 대두(환자군 3.6회/mon, 대조군 19.3회/mon), 셀러리(환자군 0.1회/mon, 대조군 2.9회/mon)의 섭취 빈도